

‘역사의 심연’에서 길어낸 ‘문화의 앙금’

동아출판사 펴냄 「韓國文化상징사전」

하늘은 父性이고 대지는 母性이다. 물은 풍요의 상징이며, 불은 열정의 그것이다. 이들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보편적 상징이다. 반면에 양의 동서, 때의 고금에 따라 상징체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어, “상징의 숲”에서 사는 박쥐는, 서양의 우화에서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신화에서는 얼음나라를 지키는 마왕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복과 다산성의 상징이 된다. 오늘날의 ‘배트맨’ 시리즈는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새로운 박쥐 상징이다.

나아가 같은 문화권의 민족에게도 시대와 지역, 분야와 층위, 그리고 집단과 개인의 차이에서도 상징은 달라질 수 있다. 흑자는 까마귀를 악과 죽음의 상징물로 사용하지만 어떤 이들은 효도의 상징인 ‘반포조(反哺鳥)’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인들은 무의식의 깊은 우물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뜨거운 상징을 하나 퍼 올리는 일을 필생의 과제로 삼고 작업에 몰두하기도 한다.

상징, 인간성에의 실마리

최근에 발행된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은 우리민족을 범주로 하여 고유 의 상징체계를 정리한 책이다. 국가나 국기 등의 상징물은 사회변동이나 세월의 흐름에 의해 國體가 변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유물’임에 반해 한 민족이 지닌 마음 속의 상징체계는 역사의 심연에 축적된 ‘문화의 앙금’이므로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전은 ‘민족성의 국어사전’이라 할 만하다.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라고 철학자 카시러는 정의한다. 상징이란 “인간성에의 실마리”라는 것. 동물의 견지에서 보면 세계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인간에게는 의미의 사다리가 놓여진 ‘상징’으로 구성돼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형식은 상징형식과 일치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의 추진력은 이성애에 있지 않고 “사회적 신화”에 있으며, 그 신화의 주요구성요소가 상징이므로, 역사는 “상징의 그림자”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전은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풍부한 상징체계를 활자로 길어 올린 두레박”이요, “영혼의 역사의 목록”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세계를 집대성한 국내최초의 문화 상징사전으로 등록될 이 사전의 발

상징은 문화의 앙금이며, 따라서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우리 고유의 상징체계를 정리한

「한국문화상징사전」은 민족문화의

두레박이요 민족혼의 목록에 비유된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세계를 집대성한

최초의 문화상징사전으로 등록될

이 사전은 160개의 표제어를 9개의

층위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다.

간에는 10여년의 준비 아래 기획되고, 2년간의 본격적인 집필과 편집기간을 거치며, 제작비 2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다고 출판사의 관계자는 전한다. 편찬위원은 강신표, 김민기, 예용혜, 유승국, 이규태, 이기영, 이동환, 이여령, 이혜순, 임동권, 정양모, 황폐강 씨 등 각계 전문가 12인.

가장 한국적인 상징성을 띠고 고문헌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많은 160개의 표제어를 9개의 층위(어원, 신화, 무속·민속, 풍습, 종교, 동양문화, 역사·문학, 현대·서양, 도상)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사전은 특히 70여명의 국내 정상 학자와 교수들이 개인 책임의 서명 원고로 정리되어 신뢰감을 준다. 그밖에 약 2천여개의 관련 도상(icon)을 제시하여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도 더해주고 있다.

표제어는 가을, 강, 개, 개구리, 개미, 거북, 거울, 검정, 겨울, 고양이, 곰, 구름, 구슬, 국화, 귀뚜라미, 귀신, 그네, 그림자, 금, 기(깃발), 기러기, 길, 까마귀, 까치, 꿈, 꿩, 나그네, 나무, 나비, 난초, 날개, 남근, 낫, 닛, 노고지리, 노랑, 노루, 누에, 눈(眼), 다리, 단군, 달, 대, 대추, 도깨비, 도끼, 도장, 돌, 동굴, 돼지, 두꺼비, 두루미, 땅, 똥, 띠, 마늘, 말(馬), 매미, 매화, 무궁화, 무당, 무지개, 문, 물, 물고기, 바늘, 바다, 바람, 박, 박쥐, 반지, 발(足), 배꼽, 백의(白衣), 뱀, 버드나무, 번개, 범, 별, 보자기, 복숭아, 봄, 봉황, 부엉이, 부자(부적), 부채, 불, 붓, 비, 빨강, 빨, 사슴, 산, 산신, 삼신할머니, 새, 샘, 성(城), 소, 소금, 소나무, 손, 숟대, 술, 술, 쑥, 아침, 안개, 알, 여근, 여름, 여우, 연꽃, 열쇠, 용, 원(圓), 원앙새, 음양, 이슬, 인삼, 임, 잉어, 자, 잣나무, 장승, 저승, 저자(시장), 제비, 종(鐘),



쥐, 지네, 지렁이, 지팡이, 진달래, 집, 차(茶), 참새, 창(窓), 천둥(우레), 촛불, 춤, 갈, 코, 닭, 태극, 태양, 토끼, 파랑, 풀, 피, 피리, 하늘, 함(函), 호미, 홍수, 화살, 흙, 흰색으로서 어린아이가 엄마·아빠·찌찌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배우며 집단무의식에 내재된 일종의 원형 같은 단어들이다.

「상징사전」, 영혼의 목록

이러한 표제어들은 9개의 층위로 나누어지되 한국의 적층문화(기록·구비)를 밝히는 고전적 의미 도출과 현대까지 존속되는 상징성과 함축된 숨은 의미의 맥락이 찾아지도록 진술한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이라는 항목을 찾으면 우선 진태하 교수(명지대)와 서정범 교수(경희대)가 국어학, 문헌학 및 알타이 제어와의 비교와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 어원을 밝힌다. 이어서 창조신화, 국조와 시조 신화, 서사무가와 씨족의 구전신화 등 신화의 층위에서 ‘모태’ ‘경계선’이란 상징성을 조희웅 교수(국민대)가 추출해낸다. 조 교수는 계속해서 사머니즘과 애니미즘, 전설과 민담을 포함한 무속·민속, 풍습의 층위에서 ‘수신의 거처’ ‘길조’ ‘풍요’ 등의 의미를 꺼낸다. 한국적인 유·불·선을 중심으로 근원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종교 층위는 단군대 차주환 교수가 맡는다. 유교적 전통에서 강은 ‘조화’를 뜻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의미하며 도교에서는 ‘은일자의 거처’를 상징한다고 밝힌다. 각각 맹사성의 「강호사시사」와 「월인천강지곡」과 김천택의 시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병한 교수(서울대)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의 인식을 비교한다.

역사·문학 층위는 다른 그것들보다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 사료와 작품이 많이 인용되기 때문이다. 고대 삼한부터 현대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상징성을 고구려하는바, 역사는 정통사관과 민간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학은 고전과 현대의 상징성의 변이·계승을 다룬다. ‘강’의 항목에서는 이화여대 이수자 교수가 온달·도미 이야기를 통해 ‘차안과 피안의 경계’를, 이규보 등의 시조를 제시하여 ‘산의 대응물, 자연’을, 김광주·박인환 등의 글을 인용하여 ‘투명성, 거울’을, 박두진 의 「8월의 강」과 유주현의 「임진강」의 구절에서 ‘세월, 역사의 증인’을, 박목월의 「이별가」 「강 건너 들」에서 ‘두 공간의 분리 또는 매개물’이라는 상징을 견져올린다. 진형준 교수(홍익대)는 그리스신화, 유대교 교리, 괴테·아폴리네르·하이네 등에서 ‘신의 은총’ ‘공포, 형벌’ ‘정화, 재생’ ‘인간적 욕망의 흐름’을 길어올린다. 특히 서양문화와 우리와의 비교를 시도하여 읽는이들에게 뿌듯한 정신적 충족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립전통공예관에 재직 중인 임영주 씨가 심사정의 「강상야박도」와 양팽손의 「산수도」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이라는 상징성을 뽑아낸 뒤 그 증거로 컬러그림을 제시한다.

「한국문화상징사전」, 민족성의 방파제

양장, 국배판 변형, 672면, 정가 45000원인 이 사전은 “외국 것과 비교해도 본격적으로 된 상징사전”이라고 편찬실무를 담당한 동아출판사의 이원명부장(52)은 자평한다. 그에 의하면 서양의 상징사전들 거개가 한두 필자에 의해 집필되고 표제어나 부피도 「한국문화상징사전」보다 적고 작다는 것이다.

사전편찬 초기단계에서 출판사측은 속편, 속속편도 발행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기획이 보류된 상태라고 전한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전은 “한민족사의 정신적 목록을 작성했다는 점, 문화의 카오스 상태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줄 방파제를 쌓았다는 점, 지구촌의 모든 문화권과의 인류학적 커뮤니케이션을 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편찬작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 김중식 기자